

局外者 로서 最近의 「캅프」에 對하야[제2회, 全3回]

黃郁

最近 「캅프」의 解消, 「납프」의 論爭 等 外部로부터서의 刺戟을 받아 캅프=團體로서의=도 그 冬眠에서 깨어나 다시금 그 行動을 開始하였다. 그리하야 一部에는 個人的으로 혼자 물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一部에는 「캅프」, 「납프」를 模倣하야 보다 自由的이고 보다 廣範圍인 組織으로 解消하자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現在의 「캅프」를 지켜나면서 모든過誤를 清算하자는 사람도 있다. 組織上에서 이러한 意見이 생기는 一方, 創作되는 作品의 藝術的 價値를 高視하며 重視하야야 된다는 主張이 거이 모든 사람의 뜻으로 씨워져 있다.(이러한 意見들의 可否는 잠간 두고라도 「캅프」가 이처럼 活動을 開始한 것을 기뻐 하야 마지않는다.)

그러나 現在 우리들은 創作 飢饉 時代인 지금 文化程度가 極히 낮은 大衆이 藝術에 목말라 있는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要求할 것은 오직 「우리에게 創作을 다오!」「노동자 農民이 읽고, 알 수 있는 創作을 다오!」하는 이것뿐이다. 그리고 現在 캅프關係者, 또는 大衆에 關心있는 모든 作家 評論家가 애써 達하라는 目的도 여기 있을 것이다.(그 뿐만 아니라 「캅프」가 解消되고 「월프」가 解消되는 理由도 그와 같은 것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創作을 보다 많이 發表하야 보다 많은 大衆에게 보다 깊은 意識을 줄 수 있을까? 一言으로 約하면 어떻게 하면 文學이 더 많이 一般 우리 運動에 貢獻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가장 緊切한 가장 主要한 問題고 目的이고 또 重點이다. 「캅프에서의 脫退도 「캅프」의 解消도, 「캅프」의 革新도 오직 이 한 가지 目的」에 비치워 가지고 決定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決코 너무 非 文學者的인 말은 아닐 것이다.

前述한바와 같이 過去 몇 해前 一般運動과 文學이 緊密히 連結되어 있을때, 「캅프」는 活潑히 活動하였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事情으로 一般運動의 힘의 表面에 나타난 것이 弱해지고 그것과 文學의 連結은 더욱 弱해지자, 캅프

는 冬眠을 시작하고 排他的 獨我主義에 빠져 그 抱擁力을 아주 잃어버리 었다. 그러나 이것은 一般運動과 文學의 緊密한 連結만이 우리 文學을 가장 잘 成長시킨다는 것을 意味한것도 아니고, 또 一般運動과 文學의 緊密한 連結만 이 우리 文學의 成長을 妨害하였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初期에 있어서는 多少相難한 作品이라도 一般 運動上 必要와 直接要求에 依하여 創作은 量的으로 많이 製作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買的으로도 文學은 어느 程度까지 進歩되었으나, 그대에는 벌써 一般運動과의 連結과 勤勞층사람들과의 接觸은 없어지고, 또 그뿐 아니라 一般運動에서의 嚴密한 黨派性이 잘못 過히作用되어 宗派主義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 「캅프」의 現狀에 對한 說明이다. 蘇聯에 있어서 처럼 우리 조선에도 勤勞층에서 優秀한 作家가 많이 생겨나고, 作者들의 幹部가 完全히 成長하여 獨自的으로 일할만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더욱이 前者는 대단히 疑問이다. 따라서 조선에 있어 서도 果然蘇聯서와 같이 「캅프」를 解消하였다고, 現在蘇聯서 準備하는것같은 새로운 보다 큰 團體가 成立되며, 보다 좋은 創作이 보다 많이 생겨나 나겠느냐 하는 것도 또한 疑問이다.

이것은 위에 말한바 「캅프」의 지금까지의 狀況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의 노동자농민의 文化程度는 아직 非常히 낮아서 「캅프」의 解消와 보다 나은 組織의 新設을 爲하여 準備되어 있지 않다. 아직도 조선의 노동자 농민은 藝術을 要求하기보다 教育을 要求하고 文字普及을 要求한다. 따라서 아직도 「캅프」는 教育的, 啓蒙的 任務를 그 藝術的 任務보다 못하지 않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캅프」는 아직도 一般 運動과의 緊密한 連結을 어느 程度까지 要求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前言한바이지만 現在의 「캅프」의 第一되는 缺點은 노동자 농민과 關聯이 너무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一時라도 現在의 그 組織조차도 버리고, 作家들이 個人的으로 또는 뿔뿔씩 分散되어 아주 한 개의 「藝術家」로서 終始하라는것은 가장 危險한것이다. 그것은 現下의 노동大衆에게다 너무나 藝術的인-오직 「藝術」의 香氣만 높은 作品을 提供할 危險件을 多分히가지고 있다. 그 뿐아니 인라태리로서의 弱點에 依하여 不必要한 分裂이 생길 念慮까지도 多分히 가지게 된다. 그러타고 現在의 「캅프」를 그대로 두고 그 宗派主義를 그대로 두라는 것은 勿論千萬 번아니다. 「캅프」는 어디까지 團體로서 또 個人으로서 새로운 作家의 養成과 獲得에 全力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그 組織의 擴大에 全力할 것은 勿論이다. 다만 暫時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은 大衆의 文化程度가 몹시 뒤떨어져 있다는 事實이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 한 가지를 말하고 싶 었다. 조선의 노동중 사람들은 그들이 自己自身들이 맨든 藝術을 가지기 까

지에는 많은 「教育」을 많은 「啓蒙」을 必要로 한다. 인테리들에게는 宣傳뿐
라 같이 밖에 안 보이는作品이라도 그것이 알아 볼 수만 잇는 것이라면, 좀
더 많이 그것을 노농중 사람들에게 보내 주었 으면 좋겠다. 배부른 인테리들
은 맛나는 「藝術品」만 要求하지만, 飢渴이甚한 사람들에게는 맛없는 것이
라도 조타. 이러한 見地에서 나는 한 두가지 要求를 提出하여 보기로 하겠
다.